



The Monthly Newsletter

November. 2019 Issue 7



CONTENTS

ONE Ministry Plan for Nov.	Page 1
ONE Ministry 사역 일지	Page 2/3
집에서 10분 놀이	Page 3
정보의 창	Page 4
Photo Gallery	Page 4
발달 장애, 더불어 배우고 생각하기	Page 4

ONE Ministry Plan For Nov.

11월 9일	꿈글 Volunteer Appreciation Night
	- 그릴봉사: Promise Friends 교사 (프라미스교회)
	- 장소제공: 장혜정(비전꿈글PTA 회장)
	- 식사주문: 박원희(프라미스꿈글PTA 회장)
	제14회 한글 올림피아드 출전
11월 09일	꿈글 학교 학부모-교사 상담
~	
11월 25일	
11월 09일	2020년 꿈글 봄학기 등록 기간
~	
11월 30일	
11월 21일	The ABLE Orchestra 휴강
11월 28일	
11월 30일	Thanksgiving Break

<The ABLE Orchestra, 첫 발걸음을 떼다!>



The ABLE Orchestra의 시작을 알리는 Open House가 10월10일 저녁에 프라미스 교회에서 열렸고 현재 매주 목요일마다 리허설이 진행 중입니다. 다양한 음악과 연주 환경을 통해 발달 장애인들이 자신을 성취해 가는 기쁨을 경험할 뿐 아니라 동료간에 아름다운 협력과 조화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The ABLE Orchestra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소망을 전하는 오케스트라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주세요.

<TO:Gather, Fun Together with all!>



10월12일 토요일, 프라미스 교회의 EM 주최로 애틀란타 전체 발달 장애인을 Bogan Park Aquatic Center 에 초청하는 TO:Gather 행사가 있었습니다. 지금껏 발달 장애인들의 평범한 일상이나 즐거운 여가만을 위한 행사는 거의 전무했던 데다가, 관련 기관 주도가 아닌 지역 교회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주관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더욱 고무적이고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지역 교회들이 이런 사역들에 동참하고 주도할 수 있는 길을 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원미니스트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프라미스 교회에 다시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육아맘 앤 대디'와 함께한 기부금 전달식 >



"나나맘" 과 함께 하는 "아틀란타 육아맘 앤 대디" 커뮤니티에서 원미니스트리의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기부를 해주셨습니다. 10월 19일 슈가로프 교회 체육관에서 "나나맘" 주최 제 1회 바자회 수익금의 일부를 어린 자녀의 손길을 통해 전달하는 기부식을 가졌습니다. 어릴 때 부터 자녀들이 기부를 알아가고,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배웠으면 하는 기획 의도를 가지고 계셨는데, 발달 장애인과 함께 하는 원미니스트리의 사역 내용을 지역 사회에 널리 알리고 싶으셨다고 합니다. 기부에 동참하신 재능과 열정이 가득한 젊은 엄마들이 마음이 참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자녀들과 이웃을 향한 선한 영향력이 더욱 확장되기를 기도합니다.

ONE Ministry 사역 일지

<원미니스트리 성인 데이케어 센터 설립을 위한 펀드레이징 - 알라바마 한인 기업>



10월 22, 23일 김창근 목사님께서 1박 2일에 걸쳐, 기업 펀드레이징을 위해 알라바마를 다녀 오셨습니다. 아무 컨택 포인트도 없이 힘든 여정을 예상했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놀랄만한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총 21개의 회사를 방문하였으며, 그 중 17개의 회사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 중 14개의 회사와는 HR 담당자에게 직접 서류를 전달한 후, 원미니스트리 취지를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5개의 회사는 장애 사역에 관해 많은 관심을 보이며, 긍정적으로 검토를 약속했습니다. 11월 중에 두 회사와의 미팅을 위해 다시 한 번 알라바마를 내려가게 될 예정입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일시적인 모금 운동 보다는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라바마 지역의 비교적 큰 회사들이 직원을 위해 매년 개최하는 Family Day 행사를 통해 저희 The ABLE Orchestra 의 연주를 소개 할 수 있다면, 장애 사역을 잘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 번의 모금 방문으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인 기업들과 컨택 포인트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장애사역에 대해 알려주며, 기업들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될 것입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10분 놀이

TAPPING TUNES

Here is a quickie for any time, anywhere.

- **Developmental Age Range:** 4 to tee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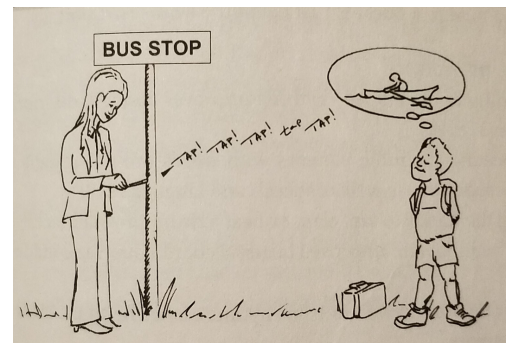
- **What you will need:** A pencil tap, hands to clap, or a drum to beat

- **What you can do:**

1. Say, "I'm going to tap out the rhythm of a tune you know. Listen and tell me what the song is."
2. Tap, clap, or drum the rhythm of a song your child knows well, such as "Row, row, row your boat." (Hum the tune, sing a key word or two, if necessary, to make the game easier.)
3. When the child guesses correctly, tap, clap, or drum, and song the song together.

- **Benefits of the activity:**

1. Listening to the tapped rhythms improves auditory discrimination and beat awareness.
2. Connecting rhythmic patterns with words promotes auditory memory and associations, as well as speech and language skills.
3. Using the hands to tap, clap, or beat a drum provides tactile and proprioceptive input and improves bilateral coordination and grading of movement.
4. Matching body movements to rhythmic beats helps the child internalize the patterns.



정보의 창

FODAC (FRIENDS OF DISABLED ADULTS & CHILDREN) - 2

Vehicle ModificAtions

발달 장애인에게 활동 범위의 제한은 많이 겪는 생활 불편함 중 큰 부분을 차지한다. FODAC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해 차량을 개조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네이션등으로 지원받은 리프트라든지 휠체어 고정 지지대들을 차량 내에 최저 비용으로 설치해 준다. 현재, 도네이션의 감소로 대기자 명단은 받고 있지 않으며, 서비스 필요 시 아래의 vendor 로 직접 연락을 취해야 한다.

- MARIETTA —Mobility Works1255 KennestoneCircle#100, Marietta, GA 770-422-9674
- NORCROSS —AMS Vans6275 Lawrenceville Hwy, Tucker, GA 30084770-729-9400
- CONYERS —R&R Vans2130 SigmanRoad NW, Conyers, GA 30012770-483-0767
- ATHENS —Custom Mobility315 Whitehead Road, Athens, Georgia 30606706-353-1099

PHOTO GALLERY



발달 장애, 더불어 배우고 생각하기

글: 정병은/사회학 박사/서울대 사회 발전 연구소 연구원/발달 장애 지원 전문가 포럼 운영위원

발달 장애 성인기를 준비하는 기초 공사 (1편)

어리기만 한 줄 알았던 지환이가 어느덧 고등학교 졸업을 코앞에 두고 있다. 특수 학급이 있는 초등학교를 마치고 미인가 대안학교와 위탁형 대안학교를 다니다 보니 남들보다 학교를 3년이나 더 다녔다. 생물학적 나이로는 이미 성인인데 사회적 나이로는 이제야 성인기에 접어들었다.

학교에 안 다니면 큰일나는 줄 알던 지환이는 작년 12월부터 학교를 다니고 싶지 않다고 말해 왔다. 등교 준비를 힘들어 하고 방과후 수업을 안 하겠다고 어필하였다. 무려 15년 동안 학교를 다녔으니 이제는 지겨울 법도 하다. 나도 몇 년 전에 갱년기와 번아웃이 겹쳐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던 터라, 이번 방학에는 실컷 쉬게 내버려 두자고 마음 먹었다. 소위 '정상인'이 되기 위해 그 동안 너무 열심히 살았으니 이제는 숨 좀 돌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본격적으로 결정해 보기로 하였다.

지환이의 성인기 준비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는데, 평소 대학생들에게 진로 상담해 주면서 강조했던 원칙들을 곱씹어 보았다.

1. 길게 내다 보아라. 지금 잘 나가는 일이 10년, 20년 후에도 잘 나간다는 보장이 없다.
2. 자기가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이 뭔지를 찾아라. 자기 자신을 잘 알아라.
3. 엄마 아빠 말을 듣지 말아라. 내 인생은 나의 것이지 엄마 아빠의 것이 아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과거 시대의 사람이다.

발달 장애를 가졌지만 지환이도 이 시대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청년이므로 이런 원칙들이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부모라는 명목으로 내가 바라는 미래가 아니라, 지환이가 자신의 존재로서 살아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방적으로 타인에게 의존하고 보호와 돌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한 인격체로서 살아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시설에서 단체 생활하며 표준화되고 규격화 된 삶이 아니라 개성 넘치고 생생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도 부모 사후에도 지역 사회에서 주민들과 섞여서 '단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아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2편으로 계속